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 · 교육감 표창

내일 도교육청서, 녹조근정훈장 1명, 옥조근정훈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등 총 365명 공로 인정식 개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에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전북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을 받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제40회 스승의날을 맞아 유공 교원 365명에게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을 전수·수여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녹조근정훈장 1명, 옥조근정훈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122명, 교육감표창 237명이다.

수상자들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평생복지, 교육혁신 등의 분야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참학력 신장 및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 공로이다.

먼저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 녹



박남희 교사 이동엽 교사 이충건 교사
정미숙 교사 이길섭 교감 송배경 교사

조근정훈장을 받는 우전초등학교 박남희 선생님은 다양한 독서교육으로 건강한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옥조근정훈장 받는 원광중학교 이동엽 선생님은 과학과 진로가 살아있는 학교 육성 등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전주서곡중학교 이충건 선생

님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의 바른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이리고등학교 정미숙 선생님은 21세기 첨단사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춘포초등학교 이길섭 교감선생님은 인성·인권 교육 활성화 및 학생중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운영한 공로를, 군산수송초 송배경 선생님은 융합인재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스승상 및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 표창자 전수식은 오는 18일 도교육청 5층 손님 맞이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선정

전북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향후 5년 동안 데이터 직무 인력에 대한 수요가 8,484명이고 그 중 데이터 직무에 필요한 인력은 3,264명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청년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까지 4년 연속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북대는 올해 '지역문화·산업 융복합 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개설, 전국에서 총 25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데이터와 정보 관련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이다.

교육은 지역 문화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본과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융·복합형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의 강점인 문화적 유산이나 지역 산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도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데이터 청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 제78회 총회 개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 등 관련 '교육의제 토의' 실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3일 광주 힐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개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발제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역불균형 상태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와 BTL 사업 등 문제점과 함께 국고사업에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국고보조 의무화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야기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협의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초등학교 입학단계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두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취학대상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더불어, 협의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자율계획 보장과 사립학교의 사업유형 다양화 및 공공성 확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실행계획에서는 40년 이상 경과 건물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사립학교는 리모델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개축보다 리모델링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개축·증축·리모델링 등 복합적 사업이 요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주(主)출입문을

중심으로 변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확대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도 사립학교법에는 기한 규정이 없어, 징계 대상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재정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의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다"고 강조했다.

다음 총회는 7월 8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 의심될때 '1339'

전북대, 차세대 광학 페인트 개발

정광운 교수팀, 보안용 잉크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팀(고분자나노공학과)이 차세대 보안용 잉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플렉서블 광학 페인트를 개발했다.



정광운 교수



구자현 대학원생

유도발광체의 고유특성을 대면적 광학 특성 발현에 적용하는 동시에 폴리메탈하이드로실록산의 자가교결을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개발된 소재를 활용해 보안용 잉크, 플렉서블 형광 페인트 등 차세대 광학 페인트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다.

이번 성과는 구자현 연구원(박사과정)이 제1저자로 주도적 연구를 진행했다. 구 연구원은 지금까지 제1저자로 4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 학회에서 2건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9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에 선정돼 현재까지 독립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구자현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광학 페인트의 적용 범위를 한층 더 확장시켰으며 논문에서 실증됐듯이 형광 패턴 및 위조 방지의 기능을 넘어 탄성체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차세대 다양한 산업분야에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시도교육감들 "서울교육감 공수처 수사 유감"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재용 절차와 관련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한 깊은 유감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특별재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재용의 취지를 도외시키고 사안을 판단했으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안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특별재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류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다. 다만, 2016년 제도 방식 전환에 따라 도입된 '공개 전형'이 특별재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나 2018년 서울 특별재용 사안은 특별재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면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재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며,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